

화공약품·뜨거운 물로 인한 화상(火傷)의 처리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와 같이 뜨거운 것에 델 경우 화상 피해는 일시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대개의 경우 화상의 진행은 적어도 3일간은 계속된다.

화상을 입을 경우 즉시 찬물에 화상 부위를 담그거나 찬물로 계속 끼얹어서 화상의 진행을 느리게 하거나 심지어는 막을 수도 있다. 체온의 저하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저하시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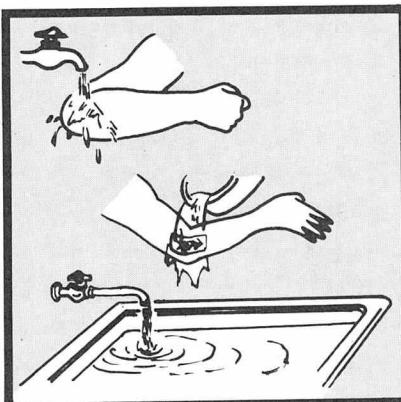
이 치료요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속이다. 화상 부위가 얼마나 빨리 차게 되느냐에 따라 피해가 감소될 수 있다. 그러므로 치료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 우왕좌왕 하지 말고 우선 화상부위를 수도꼭지나 호스를 이용, 찬물로 끼얹어 주어야 한다. 물이 있거나 눈(Snow)이 있으면 이것을 이용해도 좋다.

화공 약품으로 인한 화상인 경우 이러한 행위는 조직으로의 침투를 늦출뿐만 아니라 화공약품을 회석시키거나 씻어내는 역할을 한다. 화공약품에 의한 화상은 일단 물로 식히고 비누나 물로 씻어낸 후 너무 강하게 압박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비누와 성긴 천으로 씻고 물로 씻어낼 것이며, 손이나 손가락, 손톱 등은 솔로 문지를 것이다.

위와 같은 방법을 써서 좋은 효과를 본 사례가 많이 있었다.

솔벤트나 벤젠과 같이 휘발성이 강한 화공약품은 비누와 물로 씻은 후 팬(fan) 앞에서 모든 냄새와 붉게 된 부위가 없어질 때까지 바람을 쏘이다.

또 한 가지, 화공약품이나 뜨거운 물로 인한 화상치료에 찬물 요법을 실시할 경우 중요한 요소는 치료의 계



법을 중단해서는 안된다.

인(鱗)으로 인한 화상은 화공약품에 의한 화상으로 생각되기 쉬우나 사실은 물에 의한 화상이나 마찬가지이다. 인은 원소 매그람당 공기중 산소와 반응하여 5,730킬로리의 열을 발산한다. 그러므로 다른 물에 던 화상처럼 치료를 해야 하지만 이에 곁들여 약솜과 가제에 2~3퍼센트 과산화수소를 적셔 반복해서 덮으면서 덮는 틈틈이 물에 담그는 것이 좋다.

산, 특히 불산(불화수소산)에 데었을 때에 과거에는 파라핀 또는 칼시움 글로코네이트(calcium gluconate) 주사를 놓았었는데 이는 오히려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찬물 요법이 이 경우에도 역시 좋다.

집이나 직장에서 지름 2인치 정도의 작은 화상을 살갗에 입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흔히 있다. 발이나 발목에 이런 화상을 입고 고통을 느끼면 빨리 찬물 요법 실시 후 전문의를 찾아야 볼구를 면할 수가 있으니 조심해야 할 것이다.

찬물 요법의 요체(要體)는 스피드에 있음을 명심하자.

[참고자료] 미국 National Safety Council 발행
Safety Newsletter (1974 5월호)